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 Empathy, Prosocial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하영희(Young Hi Ha)¹⁾
Carolyn Pope Edwards²⁾

ABSTRACT

In this study of adolescent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320 male and female 7th and 8th grade students in Changwon.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low friend support,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had direct paths to adolescent overt aggression. 2) Low teacher and friend support,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had direct paths to adolescent verbal aggression. 3) Low empathy and self-esteem were indirectly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on through low prosocial behavior. 4) Low teacher support was indirectly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on through low empathy and self-esteem. 5) Low friend support was indirectly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on through low self-esteem.

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감정이입(empathy),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친구지지(friend support).

I.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점점 저연령화, 집단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한 행동들은 학교부적응 혹은 우울 등의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문제까지 유발(Hudley & Grabam, 1993; Loeber & Hay,

1997)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된다(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2). 하나는 공격성을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반응의 효과에 의해 접근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공격자의 공격 의도 및 동기를 포

¹⁾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교사

²⁾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 가족·소비자 과학과 및 심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 Hi Ha, Busan Dong Girls High School. 31 Namcheon 1 san, Suyoung-gu, Busan 613-816, Korea E-mail : 72smile@dreamwiz.com

함시켜 정의하는 접근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여 공격성을 “신체적 혹은 언어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 혹은 상해를 주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런 공격성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비행에 포함되는 종류 등을 제외한 물건차기, 협박하기 및 욕설하기와 같은 외현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환경변인과 개인변인의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 특유의 다양한 변화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여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Dubow & Ullman, 1989).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주로 학교에서 또래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교사와 친구로부터 얻는 관심과 사랑 등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및 친구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받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학생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발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및 친구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선자, 2002; 한미현, 1996)와 교사지지가 청소년들의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유안진 외, 2002)가 보고되고 있다. 친구지지가 공격성을 포함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김선자, 2002)와 친구지지가 낮

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이경주, 1997)가 있다. 한편, 교사 및 친구지지가 자기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으며(김선자, 2002), 친사회적 행동 및 감정이입과도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영희, 2001)한 연구들은 교사 및 친구지지가 이들 관련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가를 연구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 혹은 감소하는 변인으로 환경변인 뿐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개인변인 역시 중요하다. 공격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개인변인에는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 등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타인에게 행하는 이로운 행동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행하는 공격성을 적게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Click, 1996)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도덕성 발달 이론가에 의하면, 감정이입은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은 하지 않게 하면서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은 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Hoffman, 1977). 감정이입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이며(Carlo, Raffaelli, Laible, & Meyer, 1999), 감정이입 훈련이 여고생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효과적이라는(곽은성, 1998) 연구는 감정이입이 공격성을 예방하는 주요변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과도 정적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김정애, 2000; Batson, 1998)은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감정이입과 달리 자기존중감은 오래전부터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주요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 및 반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김애경, 2001; Rosenberg, 1985).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자기행복과 관련된다.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분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Brown & Mankowski, 1993), 자기가 치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McMahon & Watts, 2002)는 자기존중감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한편, 약물복용자를 돕는 사람들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Hicks, Hicks, & Bodle, 1992) 연구는 자기존중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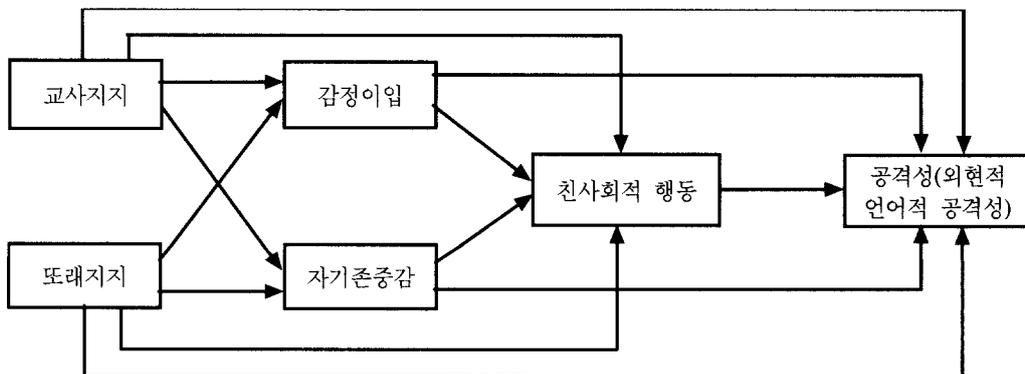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거나 환경 및 개인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이들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한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 및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및 자기존중감 등의 변인들과 청소년의 공격성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증가해 가는 공격성의 예방은 물론 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격성에 대한 청소년의 교사 및 친구지지,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인과적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교사 및 친구지지,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간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즉 교사 및 친구지지는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154명)과 2학년(166명) 학생 320(남 : 174, 여 : 146)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약 80.6%이며, 어머니의 경우 약 78.1%가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약 36.2%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 약 41.3%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수입은 150~200만원이 약 43.9%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안녕(1983)이 사용한 공격성 척도 중 외현적 영역 10문항과 언어적 영역 5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화가 나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외현적 공격성)” 및 “나는 상대방과 싸울 때 주로 내가 먼저 욕설을 한다(언어적 공격성)”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자주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64과 .62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합한 전체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2) 교사 및 친구지지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 및 친구지지를 측정

하기 위하여 신은영(1998)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당신의 선생님(친구)들은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잘 이해합니까?”와 같은 7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및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 및 친구지지 척도에 대한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86과 .64로 나타났다.

3)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영희(2001)의 청소년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모두 19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내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돌림 받는 급우와 놀아주기”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18점에서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63이었다.

4) 감정이입

청소년의 감정이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Bryant(1982)의 아동 및 청소년용 감정이입 검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급우를 보면 마음이 슬프다”와 같은 문항에 “아니다”의 1점에서 “그렇다”의 2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22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정이입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7이었다.

5) 자기존중감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자(2002)가 사용한 자기존중감 척도의 25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12 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존중감 척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편이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78이었다.

3.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창원시 중학교 1, 2학년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사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33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32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SPSS WIN 1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공격성, 친구 및 교사지지,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외현적 공격성은 감정이입($r=-.42, p<.001$), 친구지지($r=-.31, p<.001$), 자기존중감($r=-.27, p<.001$), 친사회적 행동($r=-.27, p<.001$) 및 교사지지($r=-.13, p<.01$)와 부적관련을 보였다. 언어적 공격성은 감정이입($r=-.39, p<.001$), 친구지지($r=-.37, p<.001$), 친사회적 행동($r=-.32, p<.001$), 교사지지($r=-.30, p<.001$) 및 자기존중감($r=-.29, p<.001$)과 부적관련을 나타내었다. 즉 감정이입, 지각하는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지각하는 교사지지 및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다. 한편, 친구지지는 자기존중감($r=.51, p<.001$) 및 친사회적 행동($r=.18, p<.001$)과, 교사지지는 자기존중감($r=.40, p<.001$), 친사회적 행동($r=.19, p<.001$) 및 감정이입($r=.15, p<.01$)과, 자기존중감($r=.22, p<.001$)과 감정이입($r=.19, p<.001$)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각하는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수준

<표 1>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n=320

| | 1 | 2 | 3 | 4 | 5 | 6 | 7 |
|------------|--------|--------|--------|--------|--------|-------|------|
| 1. 친구지지 | 1.00 | | | | | | |
| 2. 교사지지 | .31** | 1.00 | | | | | |
| 3. 감정이입 | .11 | .15* | 1.00 | | | | |
| 4. 자기존중감 | .51** | .40** | .15** | 1.00 | | | |
| 5. 친사회적 행동 | .18** | .19** | .19** | .22** | 1.00 | | |
| 6. 외현적 공격성 | -.31** | -.13** | -.42** | -.27** | -.27** | 1.00 | |
| 7. 언어적 공격성 | -.37** | -.30** | -.39** | -.29** | -.32** | .58** | 1.00 |

* $p<.01$ ** $p<.001$

이 높음을 말하며,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및 감정이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존중감과 감정이입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 역시 높다.

2.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회귀분석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환경 및 개인변인의 영향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개념적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 및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다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한 결과, 공차한계가 .10 이상 그리고 분산팽창계수가 5.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표 2>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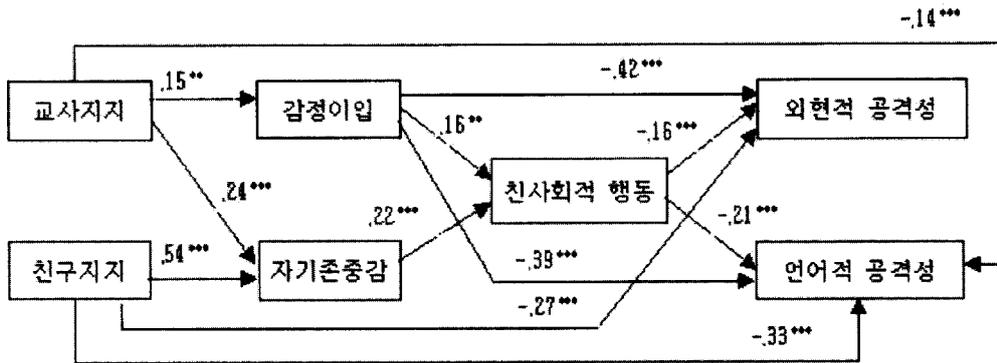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β | R2 | F |
|---------|---------|------|--------|-----|----------|
| 감정이입 | 교사지지 | .11 | .15* | .02 | 7.09* |
| | 친구지지 | .81 | .54** | .37 | 188.27** |
| 자기존중감 | 교사지지 | .21 | .24** | .42 | 115.28** |
| | 자기존중감 | .15 | .22** | .05 | 15.54** |
| 친사회적 행동 | 감정이입 | .14 | .16* | .07 | 12.13** |
| | 친구지지 | -.39 | -.42** | .17 | 66.62** |
| 외현적 공격성 | 친구지지 | -.27 | -.27** | .25 | 51.39** |
| | 친사회적 행동 | -.17 | -.16** | .27 | 38.72** |
| 언어적 공격성 | 감정이입 | -.25 | -.39** | .15 | 55.94** |
| | 친구지지 | -.23 | -.33** | .26 | 54.04** |
| 공격성 | 친사회적 행동 | -.16 | -.21** | .30 | 44.07** |
| | 교사지지 | -.14 | -.14** | .31 | 35.55** |

*<.01 **<.001

먼저, 청소년의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교사지지는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 변인의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력은 2%정도였다.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은 지각된 친구 및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42%정도였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기존중감과 감정이입 수준이 높을수록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약 7%였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은 감정이입, 지각된 친구지지 및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7%였다. 언어적 공격성은 감정이입, 지각된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및 지각된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31%였다.

3. 인과모형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교사지지($\beta = -.14, p < .001$)는 청소년의 언어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이입($\beta = .15, p < .01$)과 자기존중감($\beta = .24, p < .00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외현적($\beta = -.27, p < .001$) 및 언어적($\beta = -.33, p < .001$)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존중감($\beta = .54, p < .001$)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였다. 감정이입은 청소년의 외현적($\beta = -.42, p < .001$) 및 언어적($\beta = -.39, p < .001$)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그림 2〉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

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beta = .16, p < .01$)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사회적 행동($\beta = .22, p < .001$)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외현적($\beta = -.16, p < .001$) 및 언어적($\beta = -.21, p < .001$)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들 중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감정이입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 및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및 자기존중감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교사 및 친구지지와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내 지각하는 교사 및 친

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감소하며(이미란, 2003) 또래지위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정연, 2003)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및 친구들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사지지가 공격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유안진 외, 2002)와는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청소년의 공격성은 자기존중감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타인에게 해로운 공격행동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과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부적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Papps & O'Carroll, 1997)와 일치하며, 또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 수준은 낮고 사회적 유능성은 높다는 김애경(2001)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감정이입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할수

록 그리고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많이 할수록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공격적인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타인의 정서를 대리정서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관용 등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켜 타인과 만족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감정이입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사회적 유능성에 효과적이었으며(Grossman 등, 1997), 돕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Greitemeyer & Rudolph, 2003)와 일치하였다. 하영희(2001)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으로 감정이입 및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은 감정이입, 친구지지 및 친사회적 행동 순으로 나타나 감정이입, 지각하는 친구지지 및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낮았다. 언어적 공격성에는 감정이입,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및 교사지지 순으로 영향력이 높아 감정이입, 지각하는 친구지지, 친사회적 행동 및 지각하는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은 낮았다. 이들 변인들 중 감정이입은 청소년의 외현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며 타인의 정서를 동일시할수록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Cohen, & Strayer, 1996)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느끼는 훈련이 여중생의 대인관계에 효과적이며(유미숙, 1998) 성 범죄자와 감정이입과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Monto, Zgourides, & Harris,

1998)에 의해 지지된다.

한편, 교사지지가 언어적 공격성에만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지지는 외현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각각 영향력을 보여 청소년들의 공격성에는 친구지지가 교사지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 및 성인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증가되고, 또 또래관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모는 물론 교사와의 세대 차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 관계가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친구지지가 교사지지보다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또래만큼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지지자가 되어 주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 친구 및 교사지지 중 교사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유안진 외, 2002)가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교사 및 친구지지라는 유연성 있는 환경변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이 보지 않거나 보상이 없어도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감정이입 때문이며(Hoffman, 2003),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 예언변인으로 자기존중감을 보고한 연구(Paulhus, 1992)와 일치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감정이입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감정이입의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지지가 감정이입의 중요한 예언변인이 아님을 보고한 하영희(2001)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기여한다는

연구(Bowen & Chapman, 1996)의해 지지된다. 감정이입과 교사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친구 및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존중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으며(Wilburn, 2003), 교사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한상철, 2003)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경우 자기존중감이 높아져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Beeber,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이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지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감정이입은 관련변인들 중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부적인 영향을 미쳐 공격성 감소 및 예방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감정이입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Carlo 등, 1999)와 일치하였다. 한편,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감정이입은 타인에게 이로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주어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되는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방안

으로 감정이입 훈련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이입 훈련이 초등학교의 인간관계 증진(이옥수, 1996)과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도를 높였으며(한명수, 2002), 초등학교의 공격행동과 과잉행동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박재룡, 2001)가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국내 도덕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갈등 혹은 문제해결 중심의 인지중심적인 도덕교육에 밀려 다소 등한시 되어온 도덕적 정서교육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도덕적 인지 및 정서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존중감 역시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인이라 생각된다.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경로로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만족스런 또래관계를 유지할수록 자기가치감 수준은 높아지며(Sandstrom, 1996), 또래관계 향상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Prinz, Blecman, & Dumas, 1994)에 의해 지지된다. 교사지지는 언어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였다. 교사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은 친구와 달리 주로 언어적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사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혹은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언어적 공

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지지가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김영숙, 1997). 교사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타인에게 해로운 공격성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인과모형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입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력도 보였다. 친구지지와 친사회적 행동 역시 감정이입 다음 순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친구지지는 자기존중감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였다. 교사지지는 공격성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을 경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내었다. 둘째,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보이지 않았으나, 친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을 적게 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은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은 '실제'와 '지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공격성과 환경 및 개인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관련변인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으로, 공격성의 개인적 발달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복측정을 요구하는 종단적 설계가 이루어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격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곽은성(1998). 공감훈련이 여고생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자(200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2).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영숙(1997). 극놀이에서 교사의 단계별 지지가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애(2000).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2003). 아동의 기질,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또래 지위가 공격성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룡(2001).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문제 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 공격 행동과 과잉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1998). 한국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관한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미숙(1998). 사회조망훈련이 여중생의 대인전략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 한유진 ·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이경주(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란(2003). 아동의 교사지지 지각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수(1996). 자기노출 및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국민 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변인간의 관계연구-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수(2002).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상철(2003). 교사의 칭찬과 꾸중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목표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tson, C. D.(1998).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4th eds., pp. 282-316). Batson : McGraw-Hill.
- Beeber, L. S.(1998).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merican wom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0(1), 91-92.
- Bowen, G. L., & Chapman, M. V.(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41-666.
- Brown, J. D., & Mankowski, T. A.(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Bryant, B.(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arlo, G., Raffaelli, M., Laible, D., & K. Meyer. (1999). Why are girls less than physically aggressive than boys? Personality and Parenting mediators of physical aggression. *Sex Roles*, 40, 711-729.
- Cohen, D., & Strayer, J.(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88-988.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ubow, F., & Ullman, C.(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Greitemeyer, T., & Rudolph, U.(2003). Help giving and aggression from an attributable perspective : Why and when we help or retaliat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1069-1087.
- Grossman, C., Neckman, J., Koepell, D., Liu, Y., Asher, N., Frey, K., & Rivera, P.(1997).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AMA*, 28, 1605-1611.
- Hicks, G. F., Hicks, B. C., & Bodle V.(1992). Natural helper needs assessment and self-esteem. *Journal of Alcohol & Drug Education*, 37(2), 71-82.
- Hoffman, L. W.(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Hoffman, M.(2003).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ley, C., & Graham, S.(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Loeber, R., &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cMahon, S. D., & Watts, R. J.(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Monto, M., Zgourides, G., & Harris, R.(1998). Empathy, self-esteem, and the adolescent sexual offender. *Sexual abuse :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2), 127-140
- Papps, B., & O'Carroll, R.(1997).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 Behavior*, 24(6), 421-438
- Paulhus, L.(1992). Predictors of prosocial behavior among inm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233-244.
- Prinz, R. J., Blechman, E. A., & Dumas, J. E.(1994). An evaluation of peer coping-skills training for childhood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2), 193-203.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Sandstrom, K. L.(1996). Searching for information, understanding and self-value : The utilization of peer support groups by gay men with HIV/AIDS. *Social Work in Health Care*, 23(4), 51-74.
- Wilburn. V. R.(2003). Adolescent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nd youth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urban, suburban, and rural youth.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63(7-A), 2711.

2003년 12월 31일 투고 : 2004년 2월 2일 채택